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동역하는 선교기관들

이번 소식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기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직접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기관들 또한 선교라는 큰 그림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선교기관을 돕느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 낫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들의 사역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독특한 설립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공통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양한 선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세계에 걸쳐 각 나라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연합되어 인권 유린의 고통과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동족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합기도 운동**이다. 세계 도시에서 평신도 기도 운동인 '그날까지 통곡기도회'의 순회사역을 개최하고, 탈북자 구출 사역, 탈북여성들을 위한 '힐링킹덤' 사역, 북한 인권현황을 세계에 알리는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매월, 그달의 기도제목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www.kccnk.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북한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

기독교 신앙의 삶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교파적 기관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20 여년 동안 지속해온 동족돕기운동 중의 하나가 빵공장 운영이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북한에 빵공장을 세우고 지난 1996년부터 미국 전역의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200 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5,000 톤 이상을 북한 어린이를 위해 보냈고, 북한의 회령과 광산지대인 무산에 빵공장을 설립하여 약 7,000 여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다가, 2014년 함경북도 선봉으로 빵공장을 옮겨 선봉지역 50 여 탁아소와 유치원에 빵을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소아과 지원, 조선족 장학 지원,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꽃 재배 지원 사업등을 하고 있다.



▲ 북한 빵공장 내부 모습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선교사님은 CCC 글로벌 교회운동의 컨퍼런스를 섬기고 있다. 온라인과 현장 컨퍼런스를 통해 전세계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되게 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코비드 이후로 CCC의 컨퍼런스와 같은 대부분의 사역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선교사님의 사역도 그에 맞추어 새로운 포맷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글로벌교회운동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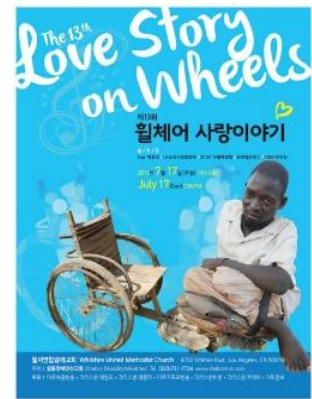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All For Worship

올포워십은 '예배를 돕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2016년 시작된 예배컨텐츠 제작 '프로젝트 팀'이다! 90% 이상 후원으로 운영되는 올포워십은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인터뷰, 소식 등을 담아 제작, 무료로 나누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환경 속에서 예배를 위한 컨텐츠를 공유하는 중요성이 커진만큼 더 활발하고 자유로운 소통으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가고 있다. www.all4worship.net

살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은 1989년 한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딸을 모두 잃었고, 사고 당시 운전하셨던 사모님은 사지마비의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님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사고 후 미국으로 건너와,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은 1999년 첫 휠체어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휠체어 총 13,291대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약 54,882점을 보냈다.



한국, 중국, 북한, 필리핀, 캄보디아, 카작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부룬디, 우간다,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12개 국가들에 약 68,173명의 장애인들을 섬겨온 것이다. 매년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열어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사회 장애인 선교사역과 봉사활동도 겸하여 진행 중이다.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공통기도:

-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 인해 지치지 않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 선교사님들이 백신 접종을 속히 받으시고, 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감비아	한병희	국제학교건물 증축, 샤머니즘과 토속신앙과 고투하는 교우들의 믿음.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한국 방문이 영적, 육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선교사님 가족의 르완다 재입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8월 예정)
스리랑카	정은범	8월에 비자 재연장이 잘 되어지도록, 어머니의 건강
아리조나	모니카 리	산불이 완전히 소강되고, 화재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필리핀	김대영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필리핀 교회의 영적 굳건함
T국	장과장 & 주열매	코비드로 실직한 난민과 유학생들의 생활고 해결. 선교사님들의 신변안전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리더십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